

# 전복 종자 개량으로 고부가가치 창출한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도해양과학원, 완도 전복업체 현장클리닉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과가 지난 16일 완도군 일대 전복종자업체를 찾아 현장 클리닉에 나섰다.

〈사진〉 수산종자과 직원들은 업체 내 양식장의 해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문제점을 청취했다.

21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과에 따르면 노환성 팀장, 선승현·정병길 연구사 등 전복연구팀 3명 등이 지난 16일 완도군 고금면 대한수산, 약산면 청운수산 등을 찾았다.

이들은 업체 내 양식장의 해수 분석을 (주)연안관리기술연구소, 경영분석을 (주)정앤서

에 각각 의뢰하는 한편 전복 치패 먹이생물인 규조류가 파관(PET 재질의 판)에 잘 부착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간이수질검사에서는 수온 섭씨 16도, 염분 33 psu(practical salinity unit)를 보였다.

노환성 팀장은 “전복종자업체들이 최근 많이 생기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단가를 맞추기 어려운데다 조금만 관리에 소홀하면 발육이 늦어지거나 폐사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종자 개량 등을 통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전복종자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 수산 종자산업 미래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지역 6개업체 현장 컨설팅

한국어촌어항협회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최근 무안군을 시작으로 여러 종자 생산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현장 컨설팅은 전남지역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업체별로 4회씩 총 24회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낙후된 국내 수산종자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

다. 최신 기술 지원을 통해 여러 종자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해소, 우량종자를 생산하도록 지원한다.

컨설팅은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해 종자업체의 생산시설, 영양과 질병 상태, 사료 성분, 경영실태 등을 조사·분석한 뒤 개선사항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컨설팅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지역 어류 종자 생산업체들이 영세성 등으로 충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지 못해 아쉽다”며 “정부가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현대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 열여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구현”

김병원 농협회장, 광주경영자총협 금융포럼 특강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이 최근 광주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설립된 경제단체인 광주경영자총협에 금융포럼에 참가해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그 길을 가다’란 주제로 특강(사진)을 했다.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지난 19일 열린 특강에는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원과 광주·전남 농협 조합장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특강에서 김병원 회장은 한국 농업·농촌의 위기를 설명하며, 회장 취임 이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발전 전략과 그 동안의 과감한 실천과정을 설명했다.

김병원 회장은 취임 후 농협 직원들의 가슴 속에 협동조합 이념을 불어 넣으며 조직 슬립

화와 비료 및 사료값 인하를 통한 생산비 절감, 농·축협 종합컨설팅 등 일련의 개혁을 진두지휘하면서 그 동안 농협 재도약의 틀을 다지는 데 앞장 서고 있다.

이날 특강에서 김회장은 ▲농협 그 변화의 시작, 1년 여의 여정 ▲절박함은 속도에 비례한다 ▲절박한 꿈은 이루어진다 ▲상상하는 사람은 절박함을 안다 ▲농가소득 증대, 발전 전략과 과감한 실천 ▲나를 이끄는 리더십 ▲농업인 소득 5000만원 시대, 그 마중물을 붓다 등의 소주제로 나눠 다양한 농업 이야기를 들려줬다.

특히 김 회장은 농협중앙회 회장의 꿈을 갖고 당선되기까지 농업·농촌에 대한 애정과 열



정, 그리고 당선 후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관료주의·권위주의 쇄신, 농협조직의 관행과 비효율 제거를 위해 솔선수범하였던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2016년 농가 평균소득은 3,720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861만원 대비 63.5%에 그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며

“농협은 기존조직을 농업인을 위한 시스템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각 사업 및 계열사별 역할을 결집해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어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 ■ 주간 증시 포커스

트럼프 탄핵 이슈·OPEC 총회

변동성 우려 확산 숨고르기 전망

바이오·헬스케어·사드관련주 관심

미국과 브라질에서 대통령탄핵 가능성이 부각되며 글로벌증시가 출렁이고 있다. 제임스 코미 FBI국장 해임으로 심화된 현재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FBI가 진행하고 있는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간 거래의혹수사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전 FBI 코미국장의 메모가 공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미국은 수사와 재판 등 법정행에 개입하고 휘말리는 행위를 대통령 탄핵의 중요사유로 보고 있으며 1974년 리처드 닉슨 및 1999년 빌 클린턴대통령에게 제기됐던 탄핵수사 사유 모두 사법방해였음)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로버트 무러 전FBI국장을 임명했으며 향후 수사진행상황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변수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공화당이 상하 양원 모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결정이 현실화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대통령의 탄핵여부와 상관없이 감세와 규제철폐, 인프라투자로 대표되는 트럼프노믹스가 대통령의 리더쉽 약화로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어 관련이슈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시장은 이슈에 따라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고 글로벌증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글로벌증시에 영향력은 낮지만 지난 17일 브라질 일간지에 테메르 브라질대통령이 최측근 정치인의 뇌물수수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었고 야당은 테메르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가능성이 부각된 18일 브라질 헤알화는 7.54% 폭락한 달러당 3.3758헤알을 기록했고 대표주가 지수인 이보베스파지수는 8.8% 급락했다. 테메르정부가 재정적자 축소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금 및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인하를 진행하고 있는데 탄핵리스크가 부각되면 개혁 추진동력이 약화될 수 있어 브라질 금융시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살펴야 할 이벤트는 미국과 브라질 탄핵이슈에도 관심이 필요하지만 일정기간 진행과정이 필요한 정치적 이슈보다 6월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유동성 축소시점을 가능케 할 수 있는 5월 FOMC 의사록공개와 25일 열리는 OPEC(석유수출기구)정기총회의 감산 연장합의 결과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금요일 현시장의 주도주인 삼성전자가 2.66%(61,000원) 하락하며 2,236,000원으로 5월들어 가장 낮은 가격을 보였다. 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지주사 요건강화 기대에 따라 대그롭지주사 감세와 함께 대기업 납품단가 인상 기대감으로 반도체, IT, 자동차 등 중소형 부품업체들의 강세가 나타났다. 일부 시장참여자들이 주도주와 시장추세변화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한국의 수출경기 및 내수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고 신정부 정책기대감이 높은 상황으로 글로벌증시 상승과정에서 부진했던 코스피지수의 상대적 저평가 매력은 글로벌증시가 추세적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 다. 주도주 역시 미국과 글로벌증시의 상승 동력이 IT 4차산업혁명 그리고 주주환원임을 고려한다면 현시장 주도주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자가 지난주에도 언급하였듯이 단기급등과 추세대 상단에 진입함에 따라 이번주에도 코스피지수는 숨고르기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주도주가 조정을 보이는 동안 낙폭과대에 따라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사드관련주와 바이오·헬스케어의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신정부 정책기대감이 높은 신재생에너지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 사주 풍수 공개강좌 및 수강생 모집

사주(명리)와 풍수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무료공개강좌**

- 일시: 2017. 5. 9(화) 오후7시
- 장소: 남구 주월동 398-52, 2층 (구)대동고양 빛고을연합의원 우측 에벤에셀교회 2층
- 대상: 누구나 (선착순 0명)

**초급반 개강 (4개월 과정)**

- 일시: 2017. 5. 16(화) 오후7시
- 장소: 상동(공개강좌 장소)
- 수강료: 사주+풍수 15만원(월)

**컨설팅분야**

- 가업승수 비법전수 및 교육훈련
- 수액파 중화, 양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매장, 이장, 납골당 등 음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대형건물, 토지 등의 풍수 감정
- 원인불명의 우환, 사업부진 등의 풍수적 진단
- 사주감정 및 교육 (사주, 궁합, 택일 등)
- 적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한국기감풍수연구회  
062)674-4991 / 010-2246-1508

### 태광공인중개사

**상가건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50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가주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보9,000 월2,7억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장/토지/기타**

1.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6,150㎡ 매58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입자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단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층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방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치평동 상가 매매**

- 상무나이트 옆 수림상가
- 10층 중 10층 795㎡(250평)
- 임대가(5000만/350만)
- 감정/시세 8억 7700만
- 급매 7억 7000만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33평)
- 교육환경 최상
- 시세 4억 3000만
- 매매 4억 1500만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 수기동 23-2번지 제일오피스텔
- 19층 95㎡(28평)
- 임대중(400만/월 47만)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5900만

문의 010-9203-6161